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돌발성 난청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5박 6일간 병실에 다른 환자들 코고는 소리와 신음소리, 기침과 가래 빨는 소리 때문에 괴로웠고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병에 걸리겠다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툭툭거렸다. 집에 돌아와 내 침대, 내 이불속에 누우니 익숙한 냄새가 너무 편안하고 좋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며 으름장까지 놓았지만 약발은 며칠은 커녕 몇 시간도 채 가지 않았다. 나의 뒤치다꺼리 업무는 쉽 없이 바로 재개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원 생활이 그리워질 것만 같았다. 딱딱딱 시간 맞춰 삼시세끼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던, 그저 내 한 몸만 챙기면 되었던 그 시간이 말이다.

나는 5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되었다. 살림만 하는 완전 전업주부라고는 할 수 없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있지만 출퇴근은 하지 않으니 누가 봐도 전업주부인 셈이다. 처음 1,2년은 너무 좋았다. 동네 친구들과 아침부터 만나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 학원 간 사이에 낫술도 마셔보고 같이 마트로 장도 보러 다니니 그렇게 신이 나고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워킹맘으로 살던 내내 내가 꿈꾸던 라이프가 아니었던가! 그러다가 언제부터가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다. (그쯤 해서 이력서를 쓰고 즉흥적으로 취업도 했었음)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뭘 했냐고, 바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만 같아 자괴감이 밀려오고 패배감마저 들었다.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돌본다는 것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 봤자 전업주부 (사전적 의미: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주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집안일을 전문으로 하는 주부에 걸맞지 않게 살림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알뜰하게 집안일을 하지도 못하고 요리나 청소가 재미있지도 않다. 아이를 넷이나 낳아 어찌다 애넷맘이 되었지만 육아의 달인이 될 수도 없었다. 성향도 식성도 모두 다른 애넷을 키우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힐 때면 나는 수시로 내 모성을 의심했다.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면서 그럴듯한 프로 전업주부가 되지도 못했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어도 억울했을 뻔했다. 보통 사회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연봉은 그 사람의 객관적 가치와 능력을 의미하는데 전업주부의 노동력을 산정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가정주부를 전문직처럼 제대로 대우해 주었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쯤 기업 임원 대우를 받아 마땅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지 못했다.

보수는커녕 그 누구도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지 않는다. "청소는 청소기가,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수시로 배달음식을 먹고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데 뭐가 힘드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나 없으면 다행이다. 위로도 격려도 뭣도 아닌 "육아나 살림이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들지" 라는 말 뿐인 처

에 아무도 감격하지 않는다. 사회적 인정은 고사하고 식구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기가 부지기수니깐.....

몇 해 전인가 학원 가기 싫어서 몸을 비비 꼬던 셋째가 "아..... 엄만 좋겠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깐....." 하며 나를 부러워했을 때 나는 평소처럼 "야 이놈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하며 빠르게 반격하지도 못했다. 시시콜콜 내가 하는 뒤치다꺼리 업무들을 나열하면 할수록 뭔가 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는 느낌이랄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안 하면 큰일 나는 일들이지만 전혀 뺄대가 나지 않는 단 말이다.

하루하루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내가 괜찮은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어물쩍어물쩍 살아간다. 그날그날 그 순간마다 할 일들에 쫓겨서 말이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기고 그날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오면 또 밥을 챙겨주고 치우고 씻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벼린다. 딱치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괜찮은 걸까? 나 자신에게 안부를 물어본다. 3주간의 불방학이 시작되어서 그런가..... 부쩍 심난하네. 에흐.....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